

생선·골프채 등 싼값 미끼로 운전자 유인하는 도로변 차량 사기 판매단 요주의!



운전중 신호 대기나 서행시 싼 물건을 미끼로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있다. 트럭이나 승합차에 생선·골프채·모피코트·노트북PC 등을 싣고 다니는 이들은 '싼값에 줄 테니 가져가라'며 유인하는 게 특징. 그러나 이들 물건 대부분이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장물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 글/유원근(한국자동차신문 기자)

도로상에서 도움을 청하는 차로 위장, 운전자들을 유인한 뒤 진짜 상품을 강매하는 차량사기판매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적한 도로변에서 지나가는 차를 세운 뒤 노트북·골프채·카메라와 같은 고가품이나 해산물 등을 턱없이 싼값에 판다며 운전자들을 꼬드기는 게 특징.

이들 제품은 부도 회사의 물건이거나 불법 취득 품이어서 시가보다 싸게라도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며 물건도 상표와 겹데기만 그럴 듯한 가짜들이 대부분이다.

대낮 통행량 많은 곳에서 말을 걸며 부도 상품, 납품 기일 놓쳤다면 유인

대학교 3학년인 김모(26세, 서울 연희동) 씨는 얼마 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앞서 달리던 1t 트럭이 갑자기 비상등을 켜며 손짓해 차를 세웠다. S 전자 영업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트럭 운전자는 납품용 노트북 컴퓨터 2대를 빼돌렸다고 시가는 2백만원이 넘지만 40만원에 팔겠다고 제의했다.

황당한 이야기에 자리를 피하려던 김씨는 트럭 운전자가 황급히 포장을 뜯어 제품을 보여주자 마음이 흔들려 지갑을 열고 말았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뒤 확인한 노트북은 액정 화면과 케이스만 그럴싸한 것이었고 내부는 텅빈 어처구니없는 제품이었다.

중소업체 사장인 최모(50세, 서울 삼성동) 씨는 더욱 황당한 경우. 양재인터체인지 부산 방향 진입로에서 비상등을 켜 그랜저를 보고 차를 세운 최씨

에게 그랜저 운전자는 노트북·골프채·카메라 등 장물을 1백50만원에 사라며 유인했다.

최씨가 물건을 보기 위해 차 뒷좌석에 앉자 일당 2명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지갑을 보자”며 위협하는 등 협박한 상황을 연출했다. 가까스로 위기에서 탈출한 최씨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으나 장물인 줄 알고 접근했던 터여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

최씨는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낯선 차가 도움을 청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다닌다.

운전자를 노린 차량사기판매는 도심 한가운데와 주변도로·고속도로 휴게소·지방국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 사기판매단은 주로 오후 3시~5시경 고속도로나 일반 도심지 등에서 비상등을 켜 채 도움을 청해 사람들을 유인한다.

대낮 통행량이 많은 곳을 택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쉽게 경계심을 풀고 도와준다는 점을 악용한 것. 이들은 운전석에 운전자를 대기시키고 주변을 살피는 등 여차하면 현장을 떠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물건을 싸게 파는 명분도 다양하다. 납품을 제때 하지 못했다거나 빼돌린 물건, 부도 상품이란 게 대다수다. 농·수산물일 경우 “경매 시간에 늦게 도착, 처분하지 못했다”며 “물건이 상하기 전에 싸게 팔려 한다”고 말한다.

**상한 생선·흠친 모피 코트 등 판매
가짜 차량 번호판 붙여 차적 조회도 불가능**

흠친 것이 대부분인 컴퓨터·카메라·모피 코트 등 고가품은 현장에서 품질을 꼼꼼히 확인할 수 없다. 급히 팔고 떠나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며 구매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 차안으로 구매자를 오게 한 뒤, 위협에 가까운 강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에게 “일단 물건부터 보고 얘기하라”며 차안으로 이끈 뒤 물건을 살 수밖에 없도록 협박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꼭 흥기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노약자나 여성 운전자들에게겐 심각한 육체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 운전중인 차를 가로막고 잠깐 세워보라는 신호를 보내 유인하거나 신호등에 나란히 선 짧은 시간을 틈타 말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 매장 부근 등 통행 인구

가 많은 곳에 차를 세워놓고 보행자들을 유혹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승합차에 모피 코트·컴퓨터·골프채 등을 싣고 다니며 아예 흠친 물건이라고 밝히거나 빼돌린 물건이라며 싸게 살 것을 권유한다. 한 장소에서 하나라도 팔면 곧바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수법으로 단속의 손길을 피한다.

영터리 횡간을 속여 파는 경우는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뤄진다. 1kg에 몇 만원씩 하는 광어·도다리 같은 생선을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빼돌린 물건이어서 상하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게 이들이 싸게 파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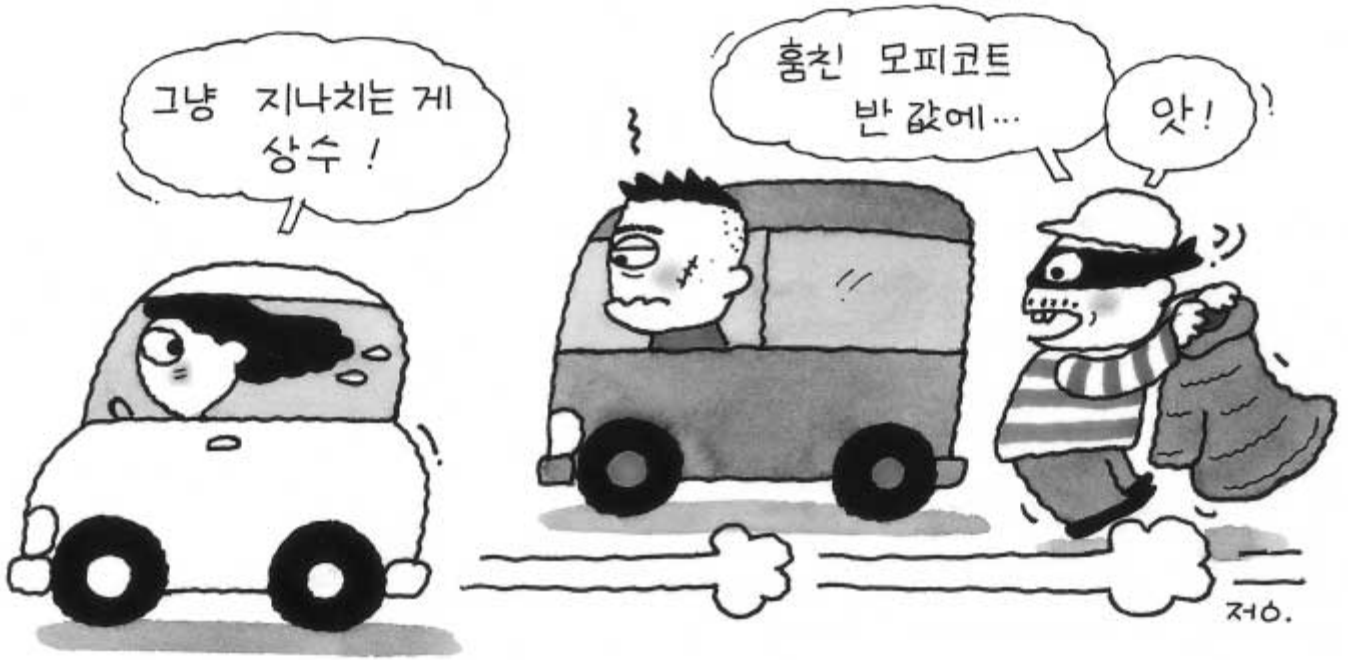
최근 검거된 차량사기판매단은 중간 공급 체계와 판매 조직까지 갖추는 등 조직적인 사기 판매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인1조로 가짜 노트북PC와 중국에서 수입한 저가 카메라·골프채 등을 싣고 다니며 가짜 번호판을 붙여 차적 조회가 불가능한 일명 ‘대포차’를 몰고 다닌다.

범행 장소가 도심지일 경우 피해자가 돈을 쉽게 인출해 올 수 있도록 주로 현금자동지급기 가까운 곳에서 차를 멈추고 주로 노트북과 외국 제품에 관심이 높은 20~30대를 유인한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안전 제일’이란 표찰과 빨 명찰이 달린 유니폼을 입거나 위조한 주한 미군 신분증을 보여 주며 ‘제때 납품하지 못한 것’, ‘PX에서 빼돌린 물건’, ‘부도 업체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며 싸게 판다고 유혹하는 게 특징.

피해자들이 관심을 보이면 한 명이 비닐로 감싼 상태에서 상표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물건을 보여준





다. 물론 가짜 상품이다. 피해자에게는 “전원이 없다”, “포장을 뜯으면 중고품이 된다”며 확인을 어렵게 하고 다른 한 명은 뒤 유리창을 닦는 시늉으로 차량 번호를 가리며 망을 본다.

**판매 행위임이 확인되거나 낚새가 이상하면
 대화를 중단하고 자리 떠나야**

경찰은 얼마 전 차량사기판매단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그러나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는데다 설령 판매상을 적발했다라도 불량품을 강매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사실상 현장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게 담당 경찰의 말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강남경찰서가 차량사기판매단 일당 20여명을 검거한 것도 현장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석 달 동안의 잠복 근무 끝에 가짜 상품을 보관한 창고를 덮쳐 검거한 것이다.

경찰은 한 번의 검거 작전으로 30여명 남짓한 조직원을 잡아들였으나 아직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조직원 수백여명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어 단속이 뜸해질 경우 이들은 또 한번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소비자 스스로 주의하는 길밖에 없다. 차를 멈추기 전에 상황을 잘 살피고 설령 멈췄더라도 판매 행위임이 확인되거나 낚새가 이상하면 대화를 중단하고 그 자리

조심하세요

**범칙금 대행 서비스 등
 운전자 노리는 각종 사기 수법 성행**

차량사기판매단 이외에도 운전자를 노리는 사기 수법들이 많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범칙금 대행 서비스가 바로 그것. 경찰이 불법 보험 영업체로 규정하고 있는 이들은 3만~12만원의 연회비를 받고 주·정차 위반 등 50여가지의 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업체가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한 영세 업체여서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실정. 만약 이들 업체가 도산하면 가입자는 연회비를 날리는 것은 물론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을 내거나 운전 면허를 취소당하는 등의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자본금 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또 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98년의 경우 등록 차량 1천40만대가 대당 평균 2~4회 꼴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업체가 떠 안을 범칙금이 보험료 연회비 총액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만간 보험사 기금이 바닥나 범칙금을 대신 납부해 주기조차 어려울 것이라 분석이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교통범칙금 대행업체는 줄잡아 40여개. 이 중 상당수 업체는 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 업체이며 일부는 회원이 또다른 운전자를 회원으로 끌어들이는 경우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보장하는 등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판매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를 떠나야 한다. 차를 세운 뒤에도 상대의 차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여성 운전자라면 그냥 지나치는 게 화를 피하는 방법이다. ㉟